

#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2025년 9월 18일(목)

- 찬송 ..... ( 337장 ) ..... 다함께
- 기도 ..... 가족 중에서
- 성경 ..... ( 롬 7:7~25 ) ..... 다함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4~25)

- 묵상자료 ..... 인도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줍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탐심의 예로 설명합니다. 탐심은 외적 행동이 아니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탐심을 품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탐심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탐내지 말라는 선한 율법’이 타락한 인간 안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에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약 1:23). 거울을 통해 우리는 어디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우리를 거울이 깨끗하게 씻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원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욕구에 굴복해 죄에 끌려다닙니다. 바울은 이런 비참한 자신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율법이 분명히 금하는 것인데도 내 마음에서 끊어 내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 기도 ..... 인도자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곤고해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간순간 저를 비추어 보며 바로 세워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다함께